## “봄, 시(詩)가 내게로 왔다” -시 인문학 수업-

꽃의 향기와 빛깔에 취하고 싶은 이 봄, 시가 내게로 다가왔습니다. 시는 천천히, 깊이 읽는 사람에게 감추어 두었던 향을 내놓습니다. 들숨으로 폐부 깊숙이 파고든 향기를, 날숨에는 감탄사(!)로 변하게 하고 싶습니다. 본 강좌에서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를 감상하며, 시의 이해를 돕고자 음악과 영상이 함께 할 것입니다.

### 가. 개 요

1) 대 상 : 성 인
2) 기 간 : **3.07.~5.16.(매주 목요일 14:00~16:00) [10회]**
   *4.18.(목) 도서관주간 행사로 인하여 수업 연기
3) 장 소 : 1층 회의실
4) 인 원 : 15명
5) 강 사 : **이승옥**

### 나. 강의내용

| 차시 | 일자 | 강의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3.7 | 들어가면서/漢詩의 이해와 감상<br>시경 북풍과 관저편,<br>봄을 노래한 [중국의 漢詩, 우리나라의 漢詩]수 편 감상 | |
| 2 | 3.14 | William Butler Yeats, Robert Frost 등의 英詩/일본의 하이쿠 | |
| 3 | 3.21 | 페데리코 펠리니의 La Strada와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/<br>길을 소재로 한 詩 | |
| 4 | 3.28 | 들꽃 싸아한 향기 속에/고향을 소재로 한 詩 | |
| 5 | 4.4 |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/꽃을 소재로 한 詩 | |
| 6 | 4.11 | 별이 빛나는 밤/고흐의 그림을 보고 쓴 詩<br>한 알 낟알 같은 저녁별/별을 소재로 한 詩 | |
| 7 | 4.25 | 기욤 아폴리네에르- 미라보 다리<br>멀리 아득히 보이던 비취빛 강물/강, 바다를 소재로 한 詩 | |
| 8 | 5.2 | 거울 속엔 언제나 이 한 사람/시인들의 자화상<br>사마천(司馬遷)의 생애와 그를 그린 詩 | |
| 9 | 5.9 | 헌 누더기 옷으로도 추위를 못 가리시던 어머니/<br>가족애를 주제로 쓴 詩 | |
| 10 | 5.16 | 정동진은 늘 혼자 남는다/역(驛)을 소재로 한 詩<br>피드백 - 나가면서 가장 마음에 남아있는 시 한 편 낭독 혹은 낭송 | |
| **재료비** | | 없음 | |

※수업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프로그램 참여 시 도서관 홍보에 사용될 사진에 대한 촬영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